

## 남자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종근<sup>1</sup>, 김종경<sup>2\*</sup>

<sup>1</sup>공주대학교 간호학과, <sup>2</sup>김천대학교 간호학과

### The Effects of 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Gender Role Conflict and Major Satisfaction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Jung-Geun Lee<sup>1</sup>, Jung Kyoung Kim<sup>2\*</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kongju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Nursing, Gimche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남자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D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3개 대학에 재학 중인 남자 간호대학생이며, 자료 수집은 2020년 3월 2일부터 4월 30일 까지 실시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분석, t-test, ANOVA로 하였다. 연구결과 남자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 평균은  $3.70 \pm 0.43$ 점, 전공만족도  $2.84 \pm 0.24$ 점, 대학생활 적응  $2.49 \pm 0.28$ 로 나타났으며, 성역할 갈등이 낮고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역할갈등은 나이와 유의한 연관이 있었고, 전공만족은 나이와 거주 유형, 대학생활적응은 나이와 병역의 유무에 따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남자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긍정적인 전문직관을 확립하고, 성정체성과 관련된 인식을 증진시켜 성역할 갈등을 낮추고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성 인식개선을 통한 직업관 확립 및 성 역할 바꾸기 등의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descriptive research examining the effects of gender role conflict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life adaptation of male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male nursing students enrolled in three universities located in D metropolitan city from March 2 to April 30, 2020. The SPSS 22.0 program was used for data analysis, frequency and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correlation analysis, t-test, and ANOVA. As a result, the average of the gender role conflict among 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was  $3.70 \pm 0.43$  points. The major satisfaction level was  $2.84 \pm 0.24$  points, and the college life adaptation was  $2.49 \pm 0.28$ . The characteristics of the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showed that gender role conflict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age; major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age and type of residence, and college life adaptation was significant according to age and military service. Based on the above resul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ositive professional intuition as a way to increase the adaptation of male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and to develop programs actively to reduce gender role conflict and increase the major satisfaction by promoting awareness related to sexual identity.

**Keywords** : Adaptation to College Life, Gender Role Conflict, Male Nursing, Major Satisfaction, Nursing Student

이 논문은 2019년 김천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 것임(gc19076).

\*Corresponding Author : Jung-Kyoung Kim(Gimcheon Univ.)

email: jj2c@nate.com

Received May 28, 2020

Revised June 11, 2020

Accepted September 4, 2020

Published September 30, 2020

## 1. 서론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대학 진학에 대해 대학교의 이름이나 취업을 생각해서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전 세계적인 불황과 함께 청년 취업난은 늘어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취업할 수 있는 간호보건의료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경쟁률 또한 크게 높아지고 있다[1].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전통적으로나 사회적인 인식으로 여성의 중심적인 직업이라는 인식을 가지던 간호 분야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률 및 직업의 안전성 등으로 간호학과에 지원하는 남학생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1962년 남자간호사가 배출된 후 2000년대 중반부터 남자간호대학생의 수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 남자간호사 수는 10,542명에 달한다[2].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남자와 여성의 역할을 구분하여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남자학생들이 여성의 수가 많은 간호학과에서 자존감 저하를 느끼게 되고 이는 대학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미쳐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이어 나가지 못해 진로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3]. 남자 간호대학생들의 적응에 대한 요인으로는 여성 위주의 교과과정, 군 입대 기간 간호학 관련 학업과 인간관계의 어려움, 여자 동기생의 이른 취업 등 다양하였다[4].

성역할 갈등은 성정체성과 관련하여 심리적인 갈등을 의미하고, 내면화된 남자 성역할로 인하여 자신과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전달하는 심리적 상태이다[5]. 남자 간호대학생들은 여자 집단 속에서 불편감과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 문화에 맞추어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이러한 갈등이 대학생활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낮추고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6]. 이로 인해 남자 간호대학생들은 여자 간호대학생 집단 내에서 이질감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느끼며,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7].

전공만족도는 전공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 즐거움, 대학생 자신의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기대치와 어느 정도 충족되었는지를 스스로 비교하여 대학생 자신이 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8]. 특히 남자 간호대학생의 경우 간호학과에 입학 후 성역할갈등을 경험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전공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9]. 또한 전공 만족도가 낮은 남자 간호대학생의 경우 학과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결과적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데 이는 간호학 교육과정이 여성 중심의 학문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남

자 간호대학생들의 성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 실습 그리고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부족하기 때문이다[10].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생활 중 요구되는 다양한 학업과 진로에 대한 대처와 대인관계, 정서적 측면 등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과정과 결과를 의미한다[11].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현재 상황, 특성과 문화를 반영한 대학생활적응은 대학 내에서 생활과 전공 관련 공부를 하는 학업활동, 관련 자격증과 취업에 관련 영어준비를 하는 진로준비, 대학생으로 도 전의식을 갖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는 개인 심리, 교내 활동만이 아닌 교외의 여러 조직의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사회체험으로 구성된다[12].

따라서 남자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응도를 높이고 미래의 인성과 실력을 갖춘 간호사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남자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진로장벽과 전공만족도 및 진로의사결정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연구[13], 성역할 갈등,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연구[14],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연구[15] 등은 있었지만 남자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자간호대학생의 성역할갈등,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남자간호대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 2. 본론

### 2.1 연구방법

본 연구는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 갈등,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성역할 갈등과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2020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D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3개 대학에 재학 중인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 하였다. G\*power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효과크기 .15, 예측요인 6개로 하였을 때 산정된 대상자 수는 123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140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에 대해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 여부는 자발적으로 서면에 동의한 경우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대담 5부를 제외한 135부를 최종적으로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성역할 갈등

본 연구에서 성역할 갈등은 1986년 O'Neil 등[16]이 개발한 Gender Role Conflict Scale(GRCS)을 Lee 등[17]이 번안·수정한 Korean Gender Role Conflict Scale(K-GRCS)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6개의 하위요인으로 성공·권력·경쟁 8문항, 남자우월 8문항, 가정의무감 3문항, 일·가정 양립 갈등 6문항, 감정표현 억제 7문항, 남자와의 애정행동 억제 5문항이며 총 37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척도는 6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 갈등이 높은 것으로 의미된다. Lee 등[1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90$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9$ 이었다.

### 2.3.2 전공만족도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는 미국 대학에서 개발한 조사지(Program Evaluation Survey)를 Jung[18]이 번안·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4개 하위요인 일반만족 6문항, 인식만족 6문항, 교과만족 3문항, 관계만족 3문항이며 총 18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의미된다. Jung[18]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7$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5$ 이었다.

### 2.3.3 대학생활적응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은 Jung 등[19]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5개 하위요인으로 대인관계 4문항, 학업활동 4문항, 진로준비 4문항, 개인심리 4문항, 사회체험 3문항이며 총 19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적응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Jung 등[1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6$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6$ 이었다.

## 2.4 자료수집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2.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 2) 대상자의 성역할 갈등,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 적응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3) 대상자의 성역할 갈등,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 적응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 갈등,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은 t-test, ANOVA로 분석하고 사후 검증은 Scheffe test로 확인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동기, 학습몰입 및 대학생활적응의 차이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본 결과 나이에 서 21~23세 72명(53.3%)으로 가장 많았으며 24세 이상 15명(11.1%)으로 가장 적었다. 학년에서 4학년 44명(32.6%)으로 가장 많았으며 1학년 22명(16.3%)으로 가장 적었다. 종교 유무에서 종교가 있는 학생은 32명(23.7%)이었고 종교가 없는 학생은 103명(76.3%)이었다. 거주 유형에서 기숙사가 62명(45.9%)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취가 32명(26.7%)으로 가장 적었다. 병역 유무에서 군필은 75명(55.6%)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필 58명(43%), 면제 2명(1.5%)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 선택 동기에서 취업률 53명(39.3%)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를 보고 전공을 선택한 학생 4명(3%)으로 가장 적었다. 학교 입학 결정에서 가족의 추천 41명(30.4%)으로 가장 많았으며 본인의 선택 22명(16.3%)으로 가장 적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 갈등,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도의 차이를 본 결과 성역할 갈등에서 유의한 차이는 나이( $F = -2.45, p = .016$ )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는 나이( $F = 8.02, p = .001$ )와 거주 유형( $F = 3.19, p = .044$ )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에서 유의한 차이는 나이( $F = 11.21, p = .000$ )와 병역 유무( $F = 4.08, p = .019$ )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der Role Conflicts, Major Satisfaction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Role Conflicts		Major Satisfacti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Age	≥20	48(35.6)	3.62±0.45	6.40(.02)	2.88±0.26	8.02(.001) b<c	2.56±0.27	11.21(.00) b(a,c)
	21~23	72(53.3)	3.81±0.39		2.77±0.19		2.39±0.25	
	24≤	15(11.1)	3.43±0.44		3.01±0.26		2.70±0.27	
Grade	1st	22(16.3)	3.62±0.46	0.47(.701)	2.90±0.211	2.37(.073)	2.49±0.21	1.33(.268)
	2nd	34(25.2)	3.69±0.48		2.90±0.20		2.56±0.26	
	3rd	35(25.9)	3.71±0.38		2.77±0.28		2.43±0.33	
	4th	44(32.6)	3.75±0.43		2.81±0.22		2.46±0.28	
Religion	Yes	103(76.3)	3.71±0.43	0.02(.879)	2.85±0.23	0.98(.322)	2.47±0.26	0.87(.353)
	No	32(23.7)	3.69±0.44		2.80±0.24		2.53±0.33	
Residence type	with parents	37(27.4)	3.59±0.52	-1.28(.203)	2.91±0.288	3.19(.044)	2.51±0.24	0.91(.405)
	Dormitory	62(45.9)	3.73±0.42		2.79±0.21		2.50±0.31	
	Self-boarding	36(26.7)	3.78±0.36		2.84±0.20		2.43±0.27	
Military service	Incompletion	58(43.0)	3.75±0.41	0.69(.501)	2.78±0.20	2.95(.056)	2.55±0.25	4.08(.019) b(a)
	Completion	75(55.6)	3.66±0.45		2.88±0.25		2.41±0.30	
	Exemption	2(1.5)	3.86±0.07		2.77±0.00		2.42±0.22	
Selective motivation	Aptitude	42(31.1)	3.74±0.45	-2.35(.057)	2.85±0.25	0.09(.983)	2.42±0.31	1.03(.394)
	School	4(3.0)	4.31±0.07		2.79±0.09		2.40±0.19	
	Advice	27(20.0)	3.64±0.44		2.84±0.26		2.52±0.28	
	Employment	53(39.3)	3.66±0.40		2.83±0.22		2.53±0.24	
	Other	9(6.7)	3.70±0.48		2.82±0.25		2.46±0.39	
The entering college decision	By oneself	22(16.3)	3.72±0.47	0.33(.798)	2.91±0.21	0.02(.982)	2.61±0.30	0.89(.444)
	By grade	35(25.9)	3.64±0.47		2.91±0.32		2.55±0.24	
	Family	41(30.4)	3.75±0.41		2.78±0.18		2.46±0.27	
	Oter	37(27.4)	3.67±0.45		2.86±0.26		2.48±0.29	

### 3.2 대상자의 학습동기, 학습몰입 및 대학생활적응의 정도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성역할 갈등, 전공만족도, 대학 생활적응의 정도를 본 결과 성역할 갈등은 6점 만점에 평균평점 3.70±0.43점,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2.84±0.24점, 대학생활적응은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2.49±0.28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Male nursing college student Gender Role Conflicts, Major Satisfaction and degree of Adaptation to College Life

	Mean±SD	Range
Gender Role Conflicts	3.70±0.43	1~6
Major Satisfaction	2.84±0.24	1~5
Adaptation to College Life	2.49±0.28	1~5

### 3.3 대상자의 학습동기, 학습몰입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성역할 갈등, 전공만족도, 대학 생활적응의 상관관계를 본 결과 전공만족도는 성역할 갈등(r=-.459, p<.000)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학생 생활적응은 성역할 갈등(r=-.453, p<.000)과 음의 상관관계, 전공만족도(r=.465, p<.000)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between Gender Role Conflicts, Major Satisfaction,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Gender Role Conflicts	Major Satisfacti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Gender Role Conflicts	1		
Major Satisfaction	-.459 (<.000)	1	
Adaptation to College Life	-.453 (<.000)	.465 (<.000)	1

### 3.4 남자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자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 중 나이, 병역을 포함하여 주요 변수인 성역할 갈등, 전공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잔차분석 Durbin-Watson 통계량 1.614로 2에 가깝고 0 또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의 독립성을 만족하였고,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P)은 1.307로 기준치 10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남자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역할 갈등( $\beta=.139$   $p<.000$ )과 전공만족도( $\beta=.300$   $p<.000$ )로 나타났으며,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30.8%였다[Table 4].

Table 4. Factors affecting Adaptation to College Life.

Spec.	B	SE	$\beta$	t	p
Constant	2.112	.412		5.120	.000
Age	-.011	.033	-.024	-0.330	.742
Military service	0.076	0.041	0.139	1.869	0.064
Gender Role Conflicts	-0.199	0.054	-0.035	-3.714	.000
Major Satisfaction	.357	.099	.300	3.597	.000
F(p)	14.467(.000)				
R2	.308				
Adjusted R <sup>2</sup>	.287				

##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 남자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 갈등과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남자간호대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성역할 갈등은 6점 만점에서 3.70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0]의 2.79점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타 전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여학생 수에 따른 결과의 차이가 상이한 것으로 사료된다. 남자간호대학생은 일반 남자대학생에 비해 성역할 갈등이 높은 수준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는 남자간호대학생의 학과적응에 대한 연구[21]에서 성역할

차이와 학과 생활에서 여학생들과 끊임없이 경쟁을 통한 스트레스를 느끼며, 졸업 후에도 대부분의 동료 간호사들이 여성들 속에서 근무해야 하는 압박이 있다고 나타났다. 이에 남자간호대학생이 성역할 갈등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학과 및 지도교수의 직접적인지지 제공과 간호학 영역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서 2.84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2]의 3.56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3] 3.86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남자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4]의 2.98점과 유사한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을 바탕으로 한 연구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 대한 연구였고, 진로선택에 대해 취업률 위주로 하여 타 전공에 비해 수업의 강도가 높은 결과라고 여겨진다. 이에 남자간호대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진로지도에 대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학과 및 지도교수의지지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은 5점 만점에서 2.49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5]의 3.33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6]의 3.09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타 학과에 비해 여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간호대학에 처음으로 들어와 인체에 대한 새로운 학습, 과중한 학습 부담감, 취업에 대한 치열한 경쟁과 한계상황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여겨진다. 이에 대학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어 학년별 생활적응과 취업전략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 중 나이, 병역유무에서 대학생활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의 경우 24살 이상이 대학생활적응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살 이하, 21~23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연구[27]에서 21~22살의 대학생활적응 점수가 낮은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생활의 적응이 높아지는데 21~23살의 경우 군대를 다녀온 학생들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도가 낮아진 것으로 여겨진다. 병역유무 경우는 미필인 경우 대학생활적응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면제, 군필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필인 경우 동기 여학생들과 나이가 비슷하여 적응도가 더 높을 수 있고, 21~23살의 경우 군 복무 후 복학생의 학업과 진로에 대한 상당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에 따른 대학

생활적응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28]와 연관해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공만족도이며, 다음으로 성역할 갈등으로 나타났다. 남자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전공만족도 ( $r=.465, p<.000$ )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즉,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자신의 전공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는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학생활에 적응하려 노력하며 실제로도 학업과 진로에 대해 잘 적응한다는 연구[29]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에 남자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특성에 맞는 보다 다양한 교수법과 증재방안을 연구하고 실행하여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남자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성역할 갈등( $r=-.453, p<.000$ )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즉 성역할 갈등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남자간호학생들의 사회적 편견과 여성성에 대한 고정 관념으로 대학생활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30]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에 남자간호대학생 스스로 인식을 개선하고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학과와 교수 차원에서 교육 과정을 통해 간호사의 전문직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지지 제공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남자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긍정적인 전문직관을 확립하고, 성정체성과 관련된 인식을 증진시켜 성역할 갈등을 낮추고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성 인식개선을 통한 직업관 확립 및 성 역할 바꾸기 등의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 할 수 있다. 첫째, 연구결과와 일반화를 위해 모집단의 표본을 선정하고, 크기를 늘려 반복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남자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역할갈등, 전공만족도 이외에 다른 변수 추가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남자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었던 변수를 확인하여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 Refer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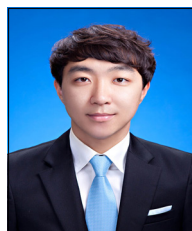
- [1] R. J. Meadus., J. C. Twomey, Men Student Nurses: The Nursing Education Experience. *Nursing Forum*, vol.46, no.4, pp.269-279, 2011.  
DOI:<https://doi.org/10.1111/j.1744-6198.2011.00239.x>
- [2] H. J. Yun, A study on the Adaption Process of Experienced Male Nurse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6, No.7, pp.209-217, 2016.  
DOI:<http://dx.doi.org/10.35873/aimahs.2016.6.7.021>
- [3] A. Stott, Exploring factors affecting attrition of male students from an undergraduate nursing course: A qualitative study. *Nurse Education Today*, vol.27, no.4, pp.325-332, 2007  
DOI:<https://doi.org/10.1016/j.nedt.2006.05.013>
- [4] M. Kim., S. M. Cho., G. S. Jeon, Barriers and Strategies to Adaptation among Korean Male Nursing Students: A Systematic Review.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22, no.3, pp.109-119, 2014.  
DOI: <https://doi.org/10.17547/kjsr.2014.22.3.109>
- [5] S. Y. Mo., J. H. Kim, (2016). Gender Role Conflict and Emotional Mid-life Crisis in Men : The Mediating Role of Fear of Intimacy. *The Women's Studies*, vol.91, no.2, pp.97-126, 2016.  
DOI:<https://doi.org/10.33949/tws.2016.91.2.004>
- [6] H. M. Hwang, M. J. Kim, Relationship of Gender Role Conflict and Job Satisfaction to Turnover Intention for Men in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3, no.1, pp.32-41, 2017.  
DOI:<https://doi.org/10.1111/jkana.2017.23.1.32>
- [7] I. S. Park, The adaptation process of 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Global Health & Nursing*, vol.1, no.2, pp.55-64, 2011.  
DOI:<https://doi.org/10.11111/jkana.2017.23.1.32>
- [8] I. O. Moon., G. W. Lee,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6, no.1, pp.83-91, 2010.  
DOI:<https://doi.org/10.5977/jikasne.2010.16.1.083>
- [9] W. J. Kim., J. K. Kim, Relationship between Gender stereotype, Major satisfaction and Self-leadership in male Nursing Students. *Vol.20, No.10*, pp.133-139,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10>
- [10] J. H. Yi., E. Y. Jang., S. M. Lee, The Predictors of Adaptation to College among Nursing Students and Gender Difference,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Vol.37, No.2, pp.12-24, 2012.
- [11] Y. O. Yang., S. O. Lee, (2012). The Relation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on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4, No.2, pp.979-989, 2012.
- [12] Y. J. Oh, Y-J, Predictors of College Lif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7, pp.307-317, 2017.  
DOI:<http://dx.doi.org/10.14400/JDC.2017.15.7.307>

[1] R. J. Meadus., J. C. Twomey, Men Student Nurses: The

- [13] E. Y. Choi., M. J. Choi., S. B. Park, The Effect of Career Barrie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Making Pattern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Mal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3), Vol.22, No.3, pp.334-344, 2016. DOI:<https://doi.org/10.5977/jkasne.2016.22.3.334>
- [14] Y. O. Lee., X. L. Wu, The Influence of Gender Role Conflicts, Pro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Mal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7, pp.173-181, 2019. DOI:<https://doi.org/10.5762/KAIS.2019.20.7.173>
- [15] K. M. Lim., H. Y. Kim, G. J. Park, The Influence of Nurse Image and Major Satisfaction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Mal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10, pp.423-431, 2017. DOI:<http://dx.doi.org/10.5762/KAIS.2017.18.10.423>
- [16] J. M. O'Neil., B. J. Helms., R. K. Gable., I. David., L. S. Wrightsman, (1986). "Gender-role conflict scale: college men's fear of femininity", Sex Roles, Vol.14, No.3, pp. 335-350, 1986. DOI:<https://link.springer.com/10.1007/BF00287583>
- [17] S. Y. Lee, I. S. Kim., J. H. Kim, Development of Korean Male Gender Role Conflict Scale. The Women's Studies, Vol.82, No.1, pp.5-33, 2012. DOI:<https://doi.org/10.33949/tws.2012..1.001>
- [18] M. S. Jung., H. J. Kwon,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n Core Competencie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1, No.2, pp.256-265, 2015. DOI:<https://doi.org/10.5977/jkasne.2015.21.2.256>
- [19] E. I. Jeong., Y. H.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Adjustment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21, No.2, pp.69-96, 2009.
- [20] G. A. Jeong., H. S. Kweon, The Influence of Gender Role Conflict on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Male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Relationship Authenticity.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Vol.17, No.2, pp.127-137, 2019.
- [21] E. J. Lee, Types of male college of nursing students' adaptation to their academic departmen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4, No.2, pp.167-175, 2017.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7.23.1.108>
- [22] Y. S. Kim., H. J. Lee, The Effect of Self-esteem, Appearance Satisfaction and Major Satisfaction on Employment Stress among University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6, pp.411-420, 2019. DOI:<http://dx.doi.org/10.35873/aimahs.2019.9.6.039>
- [23] H. J. Choi,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life Adaptat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6, pp.68-77,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6.68>
- [24] E. Y. Cho, E-Y, The Effect of Gender Stereotype and Military Duty Planning Level on Major Satisfaction in Male Nursing Students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7, No.6, pp.3375-3390, 2015.
- [25] M. J. Jun., E. K. Noh, The Convergence Study effected of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health-related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4), 433-442, 2018.
- [26] E. A. Kim., K. S. Jang, Developing a Prediction Model Regarding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18, No.2, pp.312-322, 2012.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2.312>
- [27] S. A. Ahn., K. S. Lee, Effects of Hardiness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n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5, No.4, pp.2165-2178, 2013.
- [28] M. J. Oh., J. H. Kwon, The Moderating Effect of Optim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ilitary Life Stress and Adjustment of Soldier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4, No.2, pp.1051-1065, 2013. DOI: <http://dx.doi.org/10.15703/kjc.14.2.201304.1051>
- [29] J. H. Kim., J. H. Lim, Male Nursing Students Majoring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f College Adapta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6, No.1, pp.91-100, 2016. DOI:<http://dx.doi.org/10.35873/aimahs.2016.6.1.010>
- [30] O. H. Jeon., W. Y. Yeom, The Influence of Gender Role Conflicts, Academic Stress Coping Ability, and Social Support on Adaptations to College Life among Mal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4, No.12, pp. 796-807, 2014.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4.14.12.796>

이 중 근(Jung-Geun Lee)

[정회원]



- 2016년 2월 :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석사)
- 2020년 8월 :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박사수료)
- 2018년 3월 ~ 2019년 2월 : 영남외국어대학 간호학과 교수
- 2019년 3월 ~ 2020년 2월 : 김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학, 삶의 질, 간호대학생

김 중 경(Jung-Kyung Kim)

[정회원]



- 2012년 2월 :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석사)
- 2017년 8월 :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2017년 2월 :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7년 3월 ~ 현재 : 김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학, 간호관리학, 시뮬레이션 교육, 삶의 질